

- 주요 뉴스: 미국 중국 제외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對中 관세율은 125%로 상향
 - 연준 주요 인사,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금리인하 결정에 영향. 경제 성장률은 둔화 예상
 - EU, 15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25% 관세 부과. 다만 협상 타결 시 중단할 방침
 - 중국, 미국에 84%의 보복 관세로 대응. 경제안정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중국 제외 상호관세 유예 발표, 경기둔화 우려 완화 등이 영향
 - 주가 상승[+9.5%], 달러화 약보합[-0.03%], 금리 상승[+4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 등으로 급등
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우려 등으로 3.5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장중 급등했으나 중국과의 무역갈등 여전하다는 평가 등으로 약보합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1%, 1.0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상승
독일은 경기둔화 우려 지속 등으로 4bp 하락

※ 뉴욕 1M NDF 증가 1443.8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446.4원, 2.54% 하락). 한국 CDS 하락

		4/9일	4/8일	전일대비			4/9일	4/8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456.9	4,982.8	+9.52%	국채 금리 10y	미국	4.33%	4.29%	+4bp
	유럽	469.89	486.91	-3.50%		독일	2.59%	2.63%	-4bp
	중국	3,186.8	3,145.5	+1.31%		영국	4.78%	4.61%	+17bp
	일본	31,714	33,013	-3.93%	CDS 5y	한국	41bp	43bp	-2bp
	한국	2,293.7	2,334.2	-1.74%		중국	82bp	86bp	-4bp
환율	달러지수	102.92	102.96	-0.03%	위험 지표	EMBI+	-	432	-
	유로화	1.0949	1.0958	-0.08%		VIX	33.62	52.33	-35.75%
	엔화	147.76	146.27	-1.01%		WTI유	62.35	59.58	+4.65%
	위안화	7.3463	7.3389	-0.10%	원자재	구리	419.3	414.4	+1.17%
	원화	1,484.1	1,473.2	-0.73%		금	3,082.7	2,983.3	+3.33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, 중국 제외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90일간 유예. 對中 관세율은 125%로 상향

-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할 것이라고 발표. 10%의 기본 관세는 유지할 방침.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율을 125%로 높이고, 이를 즉시 발효할 계획.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한 25%의 품목별 관세는 기존 계획대로 부과한다는 입장
- 백악관 대변인 역시 중국에 대한 관세가 125%(기존 104%)로 인상될 것이며, 이는 중국이 경솔하게 보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. 또한 어느 국가든 미국을 공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하게 맞받아칠 것이라고 강조. 중국 이외의 국가들과는 맞춤형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첨언
- 최근 트럼프 관세로 인한 글로벌 무역전쟁 심화 우려와 이에 따른 큰 폭의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었는데,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
-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동맹국들과 좋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, 이를 통해 중국과의 불균형적인 무역 구조 해결을 위한 공동 접근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언. 또한 중국이 새로운 관세에 대응하여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
- Goldman Sachs의 해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1년 이내 경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을 낮추고(65%→45%), GDP 성장률 전망치는 0.5%로 제시. 다만 이번 하향 조정에도 경기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첨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연준 주요 인사,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금리인하 기준에 영향. 경제 성장률은 둔화 예상

-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카시카리 총재는 관세로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가능성이 커졌고, 이에 따라 금리인하의 기준 역시 높아졌다고 발언
-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무살렘 총재는 경기침체를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하지는 않지만, 경제 성장률은 기존의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평가. 반면 리치몬드 연은의 바킨 총재는 아직 소비지출 감소 추세가 뚜렷하지 않다고 진단

■ 3월 FOMC 의사록, 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영향은 불확실. 신중한 접근이 적절

- 의사록에 따르면, 다수의 위원들은 관세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높으며, 이로 인해 통화정책 결정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피력. 특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

■ EU, 15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25%의 관세 부과. 다만 협상 타결 시 중단할 방침

-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관세 부과에 맞서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25%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. 다만, 미국이 공정하고 균형이 맞춰진 협상 결과에 합의할 경우 이러한 조치는 중단될 것이라고 부연

■ ECB 주요 인사,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인하 강조. 일부는 인플레이션을 우려

- 렌 위원은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, 이에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하의 근거가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. 다만 노트 위원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어 정책 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

■ 중국, 미국에 84%의 보복 관세로 대응. 경제안정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

- 관세세척위원회는 10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34%에서 84%로 높인다고 발표. 또한 상무부는 미국 군수기업 6개 업체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하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단행
- 리창 총리는 외부의 충격으로 안정적인 경제 관리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. 아울러 이를 감안하여 보다 공격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

■ 일본은행 총재, 경제 전망 현실화 시 금리인상 지속.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경계

- 우에다 총재는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등의 전망이 예상에 부합한다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언. 다만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4/10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3월 소비자물가, 연준 보우먼 이사 및 달러스 연은 로건 총재 발언
- 미국 4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중국 3월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, 국채시장은 단기 경기침체 우려 완화 신호 발신 - Financial Times

(Markets calling off America's Greatest Depression)

- 미국은 향후 90일 간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. 뉴욕 주요 주가지수는 중국과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. 이는 교역국들과의 협상 기대 및 경기침체 우려 완화 등에 기인
- 특히, 2년물 국채금리는 그 동안 경기침체 위험 증가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 등을 반영하면서 가파르게 하락. 다만 이번 조치로 2년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10년물 국채의 금리 대비 큰 폭 상승(9일 기준, 10Y +4bp vs. 2Y +18bp). 이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상존하지만, 단기 경기침체 가능성은 감소했다는 의미

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비관세장벽 철폐 노력, 무역분쟁 장기화 초래할 소지 - WSJ

(Trump Wants to Rewire Every Other Economy With Trade Onslaught)

- 트럼프 대통령은 EU, 베트남 등이 제안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한 비관세장벽 폐지까지 요구. 이는 수입쿼터 등 명백한 장벽뿐 아니라 식품안전 규제, 세금 등 국내 규제 전반을 포함하는데, 관련 내용은 관세보다 복잡해 분쟁 해결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
- 특히 비관세장벽은 각국의 문화, 정치, 오래된 관행 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철폐하기 어려운 특성이 내재. 아울러 트럼프의 요구는 실질적으로 타국의 규범과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이기에 무역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

■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국채, 유동성·수익성 측면에서 현실적 대안은 부재 - 블룸버그

(There Isn't a Practical Alternative to US Treasuries)

- 트럼프 관세 여파로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국채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확산.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일본 및 유럽 국채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다음의 이유로 대체 자산으로는 부적합. 일본 국채는 낮은 수익률(10년물, 1.25%), 막대한 정부 부채(GDP 대비 250% 이상), 거래량 부족 등이 걸림돌로 작용
- 유럽 채권의 금리도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편이고, 유로존 내 거래 비중이 높은 독일 국채의 10년물 수익률도 2.6%에 불과. 또한 독일 정부의 지출 확대 계획도 주의할 사안. 이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대규모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동성과 여전히 매력적인 수익률을 감안할 때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국채의 역할은 지속될 전망

- 연준의 통화정책, 물가와 고용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직면 - 블룸버그
(Federal Reserve is facing some difficult choices)
 - 백악관이 예상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연준은 공급충격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위험에 직면.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, 연준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놓일 가능성. 이에 더해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백악관의 정치적 압력
 - 이에 연준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신뢰 유지. 신뢰는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, 신뢰가 흔들릴 경우, 연준은 물가와 고용 관련 목표 모두를 달성하지 못할 소지. 백악관이 연준의 정책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무역정책의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할 필요
- 미국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, 소비심리 고려한 정책 대응이 요구 - 블룸버그
(Inflation Is a Mind Game, Too)
-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및 외교 행보, 많은 모순을 내포 - Financial Times
(The hopeless search for Trump's cunning plan)
-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에 대한 의구심, 지속적인 매도를 유발 - Financial Times
(US Treasuries sell-off deepens as 'safe haven' status challenged)
- 유럽 증시 낙관론, 미국 관세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퇴색 - Financial Times
(Europe's stock market optimism wilts after tariff shock)
- 고위험 신흥국 채권, 금리 상승과 성장 우려로 투자자 접근성 악화될 소지 - Reuters
(Drop in riskier emerging market bonds stokes concerns over market acces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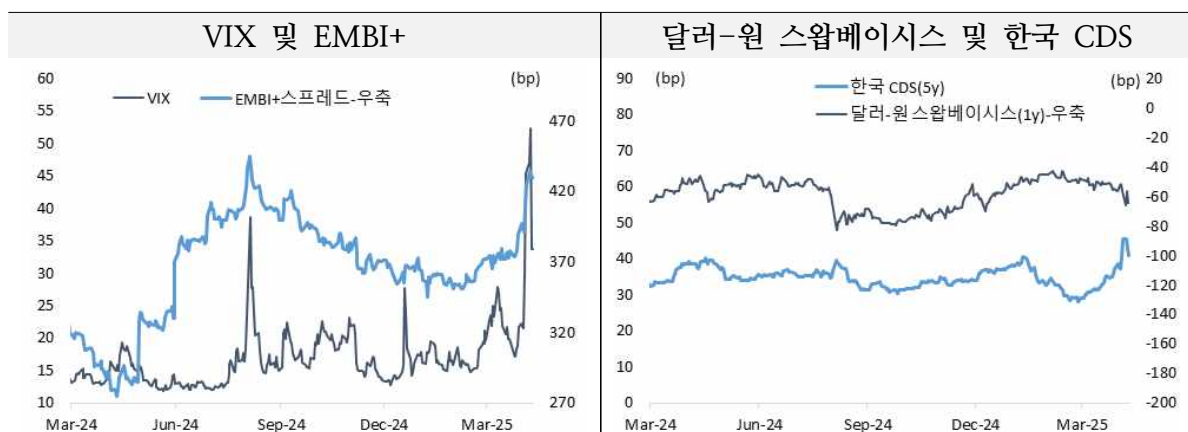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